

휘발유, 리터당 1850원대로 하락

경유도 전국평균 1845.62원 ... 국제 석유제품가격 연일 내림세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850원대로 떨어졌고 경유는 1840원대로 내려섰다.

한국석유공사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7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리터당 1850원, 경유는 1845.62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평균가격이 1850원대를 기록한 것은 5월 셋째 주(1816.98원) 이후 처음이며 경유 역시 5월 셋째 주(1785.23원) 이후 가장 낮았다.

휘발유가격은 7월17일 1950.02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일만에 99.17원(5.1%) 떨어졌고 경유도 사상 최고치를 보인 7월17일 1947.75원에 비해 102.13원(5.3%) 급락했다.

최근 원유가격 급락에 따라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연일 내림세를 타고 있어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당분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8월6일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휘발유(옥탄가 92 기준) 가격은 배럴당 116.08달러로 전날보다 0.99달러 하락했다. 사상 최고로 올랐던 7월4일의 배럴당 147.30달러에 비해 31.22달러(21.2%) 급락한 것이다.

경유(유황 0.05%) 현물가격도 배럴당 140.64달러를 기록해 4월9일 139.78달러 이후 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7월7일 기록한 최고치인 182.46달러에 비해서는 배럴당 41.82달러(22.3%) 내렸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8/07>